초심은 잃었고 대신 본심이다

(욥기 33:1~33)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초심은 잃었고 대신 본심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초심은 잃었고 대신 본심이다'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5월 10일에 월드스타 싸이가 데뷔 17년을 맞이해서 "4*2=8"이라는 제목의 8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4와 2는 싸이를 뜻하는 것이고 8은 8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앨범을 발표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척 특이합니다. "아! 그 놈의 초심타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스물넷 미혼에 병역미필 시절에 데뷔했는데 지금은 마흔넷 기혼 군필자가 되었습니다. 초심을 찾을 수 없기에 이번에는 본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고뇌를 한 셈입니다. 음악 작업이 안 될 때면 사람들이 옆에서 "힘을 빼라, 해외 반응을 의식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초심을 가지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강남스타일 이후에 가졌던 압박과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털어놓으며, 곡 작업이 너무 안 돼서 가수를 그만둘까를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8집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대 초반의 가수들과 함께 음악작업을 하면서 음악이 아주 쉬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명성이 없었고 팬들의 기대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쉬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본심을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만든 10곡을 8집에 채워서 들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초심과 본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서 탁월한 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를 보고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제 마음이 다 시원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초심과 본심은 복음적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에 승리한 다음 날에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청와대에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겠다.”라는 연설을 했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대통령의 서민지향적인 소탈한 소통의 행보에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저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초심은 본심에 의해서 밀려나야만 합니다. 본심이 찾아지면서 초심은 잃게 되어야만 합니다. 월드스타 싸이가 말한 본심은 아마도 음악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팬들의 관심, 명성, 판매 수입, 해외의 반응 같은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음악을 좋아했던 시절의 마음을 되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의미에서 본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속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사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의 마음을 디자인 해놓으셨는데 이게 신앙적 본심입니다. 이 본심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맞춤형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이후에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어 주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분야나 일에 대해 갖게 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신앙적 의미에서 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초심은 원죄의 체질이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본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심은 원죄의 체질 상태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초심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겠다.’라는 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을 회복한다면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할 것이고, 청와대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빈손의 가치는 공직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일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주장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이 끈질기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굽힐 줄 모르는 욥의 주장을 듣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큰 실수라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재앙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욥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 재앙을 주시는 실수를 하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욥이 재앙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만, 엘리후는 욥의 말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 다소의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욥과 세 친구들이 재앙과 고난의 이유를 과거의 행적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좀 더 훌륭한 모습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보편적인 생각의 틀을 깨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립적인 상태의 자연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 죄를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죗값으로 인해 재앙과 환란이 형벌로 주어진다고 믿고 결국에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한 행위가 악하면 벌을 받고, 선하면 상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인간도 이 세상에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행한 죄악이나 선행으로 인해 상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어나서면서 원죄가 운명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순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체질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아기의 운명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형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원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는 곧 본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본심은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통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원죄가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심을 잃지 않은 타락 이전의 인간과, 본심을 잃어서 원죄를 체질로 갖게 된 인간은 만족과 기쁨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원죄의 인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초심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원죄 이전의 본심을 유지하는 인간이라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서 사업에 임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죄 인간은 초심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고 기뻐하고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본심을 가진 부모는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관계합니다. 애인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 인간은 애인을 만났을 때의 가슴 뛰는 초심을 유지하며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반면에 타락 이전의 본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애인도 만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 인간은 결혼을 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본심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 상태에서 결혼을 합니다. 본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왜 재앙과 환란과 실패를 허락하시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게 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원죄의 체질이 가동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죄적 활성화의 결과에 대한 벌은 주시지 않습니다. 원죄가 활성화 된 마음을 바꾸시고 고치시려는 과정에서 재앙이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재앙이나 환란은 형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본심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앙과 환란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심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본심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서 본심이 이루어지면 '4*2=8'이라는 싸이의 8집 앨범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수학적 등식으로 보면 '원죄 체질의 마음 +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 본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타락이라고 합니다. 원죄가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24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서 원죄가 활성화 될 때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하고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손에 쥐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의 마음에 십자가가 더해져서 묶인 상태가 본심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원죄가 체질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또한 마음에 담은 것을 손에 쥐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원죄적 체질을 활성화시키는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자녀로 기뻐하려는 마음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본심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임한 재앙이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즉 재앙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욥의 본래의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은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은 본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안 벌릴 때에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만족하려는 원죄적 체질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몸에 병이 났을 때에도 무병장수하려는 마음은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건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만큼만 유지되면 된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해서 본심으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재앙 역경 어려움 고난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경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 친구들에 비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어려움과 역경은 이들의 잘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에게 본래 계획하셨던 본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눈총이나 질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심을 찾는 것입니다. 본심을 찾으면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심은 원죄의 체질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본심에 의해서 반드시 잃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본심의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